

# 도시화 위기 속에 낙농산업을 지키는 농가 실천사례



**성경일**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 우수목장선정위원장)

## 1. 머리말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낙농가는 심각한 축산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미 및 한·EU간 FTA 문제, 후계자 문제, 국제화 등으로 폐업이 증가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기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보고 있기에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보인다. 농촌과 도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혼주화(混住化)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낙농 진흥을 위해서는 도시주민의 낙농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역농업의 중심축으로서 낙농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낙농경영은 크게 초지중심의 낙농과 도시근교에서 많이 보이는 시설중심의 낙농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형 낙농(도시근교낙농, 도시 내 낙농)에는 높은 땅값, 높은 임금, 좁은 농지, 도시화(도농복합화)의 진행 등 경영의 존속이나 규모확대를 제약하는 많은 조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하에서 규모확대로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적인 시설형 낙농경영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것은 낙농을 경영함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도시화의 압력”을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시화의 유리함”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도시형 낙농의 유리한 점으로 우유 및 유제품의 판매입지, 비교적 좋은 유가, 용이한 노동력고용, 퇴비판매의 유리한 조건, 용이한 사료구입, 각종 정보의 유리한

수집 등을 들 수 있다. 즉, 도시형 낙농의 낙농가는 입지조건으로서의 “도시화의 압력”을 경영발전의 인센티브로 하는 비즈니스 감각으로 “도시화의 유리한 점”으로 바꾸는 감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도시화가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낙농가는 단순히 낙농경영이라는 경제학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낙농의 개인적인 지향, 지역 내 네트워크나 유기적인 관계 및 신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형 낙농경영을 영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도시화 팽창에 따른 도시형 낙농의 문제를 경험하고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일본의 도시형 낙농, 특히 경영규모나 자급조사료면적의 확대가 어려운 도시형 낙농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도시형 낙농 사례

### 〈사례 1〉 도시주민과 공존하는 낙농경영(하세가와 목장)

나고야현 후지사وشي 주택지 한 가운데 착유소 50두를 사양하고 있는 하세가와 목장이 있다. 이 목장에서는 부인이 독일 낙농시찰을 한 것을 계기로 지역의 소비자에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8년에 목장 내에 유제품 가공판매시설(Ricotta)를 개점했다. 인근의 소비자에게 신선한 방금 착유한 우유로 만든 수제 아이스크림이나 치즈 등을 제공하므로써 우수함 유질과 도시 한 가운데에서의 목장의 존재를 어필하고 있다.

목장주는 나고야현 홀스타인동지회 회장 역임하고, 홀스타인 품평회나 유질개선포럼 등에서 우수표창을 받는 등 대표적인 우수 낙농가이다. 젖소개량에 관해서는 체형개선은 물론 일찍부터 유성분 개량의 포인트를 유단백 함량에 두고 유제품가공에 사용하는 생유는 유성분이 높은 젖소를 선별하여 바켓츠착유기로 개별 착유한 우유를 사용하는 등 오랜 기간 젖소개량의 성과를 유제품으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채소를 이용한 수제 아이스크림(젤라토 형태), 브라운스위스 품종에서 생산된 생우를 사용한 치즈, 생유로만 만든 먹는 요구르트 등 여기에 사용하는 원료에 심혈을 기울인 유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 유제품은 지

역의 주부나 어린이에게 호평을 얻어 그 소문이 입으로 전달되어 일부러 도쿄에서 사러 오는 손님도 있을 정도다. 1999년에는 후지사와 역 건물 내에 지점을 내고 수제 아이스크림 이외에 소프트아이스크림이나 크레이프 등 본점과는 다른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목장주인은 목장이 주택지에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대책에 충분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우사바닥에 냄새제거제 살포, 사료에 토양미생물제 첨가, 젖소의 음수로서 알칼리 온수를 이용하는 등 우사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냄새를 억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분뇨처리는 오줌과 오수는 공공하수도를 이용한 처리, 분에 대해서는 퇴비화시설에서 처리한 후 퇴비로서 지역의 채소농가 및 원예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낮은 유대, 환경문제 등 어려운 축산정세 속에서 도시라는 소비지에 인접하고 있는 입지조건을 살린 낙농을 실천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융합한 이 목장은 도시한 가운데서 낙농을 할 수 있다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 2〉 도시형 낙농의 활로를 개척하는 젤라토 샵의 전개(百草목장)**

백초목장이 있는 日野시는 도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동안 기업유치나 대규모단지 개발에 의해 주택도시로서 발전을 계속해 왔다. 도시개발 이전에는 농업을 중심으로 변창한 이 도시에도 농업인의 수는 급감하여 이제는 총세대수 중 차지하는 농가세대수의 비율은 0.5%로 아주 낮으며, 이 日野시에서 이 목장 한 개만이 남아 있다. 이 목장은 목장주의 아버지가 그 동안 12~13두의 착유소를 유지하면서 경영을 하다가 2002년에 아들이 물려 받으면서 현재 19두(이중 저어지 품종 2두)를 착유하고 있다.



우사를 본떠 지은 아이스크림 가게

그러나 목장의 입지조건상 더 이상 규모확대를 할 수 없어 낙농만으로 수익을 더 올릴 수도 없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오랫동안의 꿈이기도 했던 자가산 생유를 사용한 유제품의 조제, 판매를 시작했다. 그리고 다양한 유제품 중에서 선택한 것이 ‘젤라토’이다. 그 이유는 폭넓은 세대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아이스(ice)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들기 쉽고 수익성을 고려하여도 아이스크림류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2004년 도쿄가 실시하는 “활력있는 농

업경영육성사업”을 활용하여 완성한 것이 젤라토이다.(점포명: 알디자노 젤라테리아, 의미: 장인이 만드는 아이스크림 가게)이다. 이 점포의 입지는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철도사이에 끼어 있는 좋은 조건의 장소에 있으며, 우사의 모양의 건물과 색깔로 되어 있다. 또한 주말에는 점포 주위에 방문되는 송아지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어 손님 모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근에는 매실 관련 농원이 있어, 매실의 계절이 되면 점포에 들러가는 농원의 관광객도 많아 줄을 설 정도로 개점초기부터 순조로운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목장주가 젤라토 만들기에 집중한 것은 이 목장의 생유 특유의 맛을 만들어 내어 그것을 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낙농가가 경영하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하고 다양한 것을 배웠다. 이러한 공부의 결과로 생산된 완성이 진한 맛을 내며 입에서 잘 녹고 산뜻한 맛의 이 목장만의 맛인 젤라토였다. 동시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이용한 젤라토에도 신경을 써 자가산의 고구마나 감자, 단호박을 사용한 것이나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봄), 블루베리(여름), 감(가을), 사과(겨울) 등의 과일을 수확시기에 맞추어 이용하는 것으로 계절감을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젤라토의 레시피(요리방법)는 80가지를 넘고 있다. 또한 지금에 와서는 가게의 주력 상품으로 되어 있는 우유맛의 젤라토는 일반크기의 2배 정도의 통을 사용하여도 1일 2~3회 제조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인기상품이 되어 있다.

특히 영업개시 이후 아직까지 판매하다 남은 제품의 폐기처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주 자랑할 만하다. 이러한 창의적 공부로 개점 이후 순조로운 운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 목장을 하기 전 모장과는 전혀 다른 이종업종인 주유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점포운영이나 손님 모으기, 손님접대하기 등의 노하우를 체득하였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가게 그 자체를 간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서 우사를 그대로 본 판 가게로 하거나 점포로부터 철도 선로를 향해서 조명이 있는 간판을 달거나, 매실농원에 오는 관광객을 목장이나 가게로 모으기 위하여 길 끝에 간판을 설치하여 산책코스로서 하는 등의 지혜가 그것이다.

이 목장의 낙농부분과 가게부분의 경영상황을 보면 낙농부분은 도입소의 자금상황, 낮은 유대, 구입사료의 폭등, 우사 내 설비의 수리비 등으로 적자지만, 그것을 가게경영의 이익에서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금년 중에 도입소 자금상황이 끝나므로 내년부터는 낙농부분의 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



홀스타인 얼룩무늬의 우사를 구성하는 관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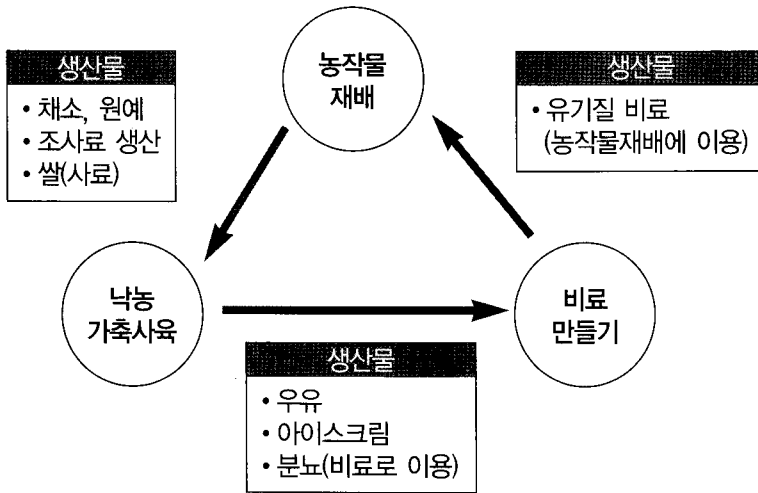
기에는 젤라토의 공헌이 아주 크다. 이 목장의 경영 수지는 낙농과 가게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가게를 가지면 낙농을 전업으로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발상이나 수단도 넓어지고 여유를 갖게 함으로서 2개의 기둥(낙농과 유제품가공판매)이 이 목장을 잘 버텨 주고 있는 것이다.

목장주는 가게부문의 도입효과에 대하여 착유소가 19두이지만, 가게 판매를 포함하면 50두 착유 정

도의 규모가 된다고 한다. 게다가 가게는 낙농보다 지출이 적어 더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순조로운 점포경영은 규모확대에 의한 효과 이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게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젖소가 있기 때문에 가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므로 낙농을 소홀히 해서는 이 목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주민은 낙농에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도시형 낙농이라고 하면 냄새를 비롯, 여러 가지 사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나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목장의 인근 주민이나 목장을 방문하는 사람은 “옛날에 이러한 냄새를 맡은 적이 있어 그립다”거나 “목장이므로 이 정도의 냄새는 당연하다” 등 목장의 부정적 이미지인 냄새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한다. 이것은 젖소에 생균제를 투여하는 등의 악취대책에 의해서 냄새를 최대한 억제하거나 우사의 외관을 홀스타인 모형으로 하고 동시에 우사의 도로 끝에 송이지를 계류하는 등 시민에게 개방적인 목장으로 한 노력의 결과이다. 여기에 낙농교육 팜에 가입하여 지역의 초등학교의 목장견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등 지역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지금 이 목장은 지역의 오아시스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목장이 경영하는 젤라토라면 지역의 정보지나 텔레비전 등 많은 매스컴이 다루고 있음은 쉽게 짐작이 간다.

이 목장의 사례에서 우리는 도시에서의 목장은 경영주의 발상과 행동력에 따라 낙농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도 쉽게 날려버릴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단순히 우유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그 지역에 없어서는 안되는 커뮤니티(사회구성요소)의 한 부분이 된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1) 자원순환형 도시형 낙농

### 3. 시사점

낙농 생산기반의 제약, 환경문제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찍부터 소비자와 손을 잡은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이것은 도시형 낙농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도시형 낙농의 농가 수는 줄고 있지만, 지역밀착형 낙농가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안전성이나 신선한 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낙농경영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보다 많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두가 똑같이 규모확대나 생력적 투자라는 방향을 향해 달려 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각각의 낙농가가 각자의 경영기반(조건)이나 인생·가치관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자 독자적인 경영스타일을 갖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방목낙농이나 메가(대형)목장 그리고 교류목장이나 사례에서 소개했던 유제품가공판매이다. 그 가운데서도 소비자와의 거리가 가까운 도시형 낙농은 교류목장이나 유제품가공판매 면에서 우위에 있으며,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지금이상으로 수익확보가 가능하며, 그리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지(응원)를 받아 목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도시형 낙농은 초지낙농의 주산지와 비교하면 아주 많은 제약조건이 있어 어렵지만, 이러한 사례를 접하면서 도시형 낙농에도 아직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많은 것 같다. 그 출발점은 농작물재배, 낙농 및 비료만들기의 생산과정을 순환시키는 자원순환형 도시형 목장이 기본이 될 것이다. ☺